



한반도 밖에서의 탈분단 실험과 공존 : 영국 뉴몰든에서의 경험을 사례로

이향규 (런던 뉴몰든한글학교 교장)

들어가며

한국에 살 때 나는 북한 사람을 만나 인터뷰한 적은 있지만, 이웃과 친구로 함께 살아본 적은 없었다. 2016년에 영국으로 이주한 이후 나는 그들을 목적 없이 자주 만난다. 그러는 동안 어렵פות이 알았던 것이 분명해지고,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이 단순해지고, 힘들여 끌고 갔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적은 것이다. 하나의 사례지만, 유일하거나 극히 예외적인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영국의 뉴몰든이라는 곳은 남북한을 벗어난 제3의 공간이고, 탈분단(혹은 느슨한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대

영국에서 북한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은, 9년 전에 한국에서 부친 이삿짐이 도착했을 때였다. 이삿짐센터에서 남자 세 명이 왔다. 사장은 한국 사람이고, 일을 도와주는 김과 박은 북한에서 왔다고 했다. 그들은 뉴몰든에 살았다. 한국인이 많이 사는 그곳에는 북한 사람들도 많다고 했다. 한번 가보고 싶었다.

이듬해, 통일연구원에 있는 선배가 뉴몰든 지역을 보기 위해 영국을 방문했다. 동행했다. 나도 초행이었다. 간 김에 김을 만나고 싶었다. 김과의 인연은 이사 후에 그가 동료들과 함께 우리 집 수리를 맡아 해준 덕분에 조금 견고해져 있었다. 당시 그들은 우리 집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구석구석을 손수 있게 고쳐 놓았다. 우리는 저녁마다 위스키나 보드카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시간은 신기하고 즐거웠다.

뉴몰든에 간다고 김에게 연락하니, 반가워하며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다. 그가 방을 잡아 둔 한식당에 가니 일 년 전 우리 집 공사를 해 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 나는 영국에 온 후, 그렇게 산해진미가 놓여 있는 음식상을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본 적이 없다. 음식과 술값 계산을 하려는 김을 만류했더니, 그는 '그때는 사모님이 음식을 차려줬으니 여기서는 내가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 김의 환대에 당황했고, 기뻐다. 솔직히 그때까지 나는 남북한 사람들 사이의 '환대'를 이야기할 때 환대는 남한 사람인 나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건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내가 강자라는 '오만' 사이 어딘가에 있었던 생각일지도 모른다. 뜻밖에 경험한 입장의 전복. 나와 그의 위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연한 사실을 이렇게 늦게 알았다. 그의 환대는, 배려도 오만도 그 사이 어느 것도 아닌, 동등한 사람 사이의 우정 같은 것이었다.

그 후 나는 뉴몰든에 있는 한글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코로나로 이동이 제한되었을 시절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매주 그곳에 간다. 북한 사람과는 친구로, 동료로, 이웃으로, 교사와 학부모로, 식당 주인과 손님으로, 행인으로 만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그 면면을 펼쳐보면, 사람 사는 곳 어디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이제 ‘북한 사람들은...’이라고 무리지어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고마운 일이건 불쾌한 일이건, 그건 ‘북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안다. 때때로 머리로만 알지만 마음이 관성적으로 구별하려 하면, 그냥 그런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돌아본다. 이런 만남이 가능한 세상에 사는 것이 고맙다.

상호 의존

뉴몰튼은 런던 중심에서 기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다. 킹스톤 지구(Royal Borough of Kingston upon Thames)에 속한다. 킹스톤에는 한국 사람이 대략 2만 명 정도 산다고 한다. 1970년대부터 주재원으로 온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점차 한인촌이 형성되었다고 알려졌다. 이곳에 북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20년쯤 전이다. 영국에는 2000년대 중반에 제법 많은 북한 사람들이 와서 난민 신청을 했다.¹⁾ 이들은 영국 전역에 흩어져 살다가 난민 지위를 받은 후에, 일자리가 있고 한인공동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뉴몰튼으로 이주했다. 뉴몰튼에 사는 북한 사람의 규모는 정확하지 않다. 지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킹스톤 난민지구(Refugee Action Kingston)에 등록된 북한 주민이 2016년에 314명이고, 2018년 현재 실제 거주하는 북한 주민은 약 500명 정도 된다고 한다.²⁾ 비슷한 시기에 한국 언론도 그 규모가 500여 명³⁾ 혹은 700여 명⁴⁾ 이라고 짐작했다. 모두 추정치다.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뉴몰튼에 북한 사람 수백 명이 살고 있는 것은 실감할 수 있다. 거리, 식당, 슈퍼마켓, 크고 작은 가게 어디에서나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이 특별한 공간에 관심이 있는 몇몇 연구자들이 뉴몰튼에 대해 참여 관찰한 연구 논문들은 이곳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⁵⁾

1) UNHCR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 17명이 난민 신청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217명, 2008년에는 289명이 난민 신청을 하였다. 신청자 수는 2009년 이후 급감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영국 정부가 북한 난민 신청 시 한국 정부에 지문 조사를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 영국에 정착한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2000년대 중반에 이곳에 온 사람들이다. 이때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약 650명에 이른다.

2) "Needs Assessment of the Korean Community in Kingston", Kingston University, 2018, <https://data.kingston.gov.uk/wp-content/uploads/2018/11/JSNA_KoreanCommunityChapter2018.pdf>.

3) "런던의 '리틀 평양' ... 탈북자들은 왜 영국에 몰리나", 동아일보, 2019년 6월 26일.

4) "[신년 기획] 다만 세 100년, 영국 마을 '뉴몰튼'서 그려 본 '작은 남북'", 경향신문, 2019년 2월 21일.

5) 뉴몰튼에 사는 남북한 주민들 간의 역동과 북한 주민의 삶의 세계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이 논문들은 연구자가 뉴몰튼에 장기체류하면서 성실하게 참여 관찰한 결과이다. 이수정, 이우영 (2014), "영국 뉴몰튼 코리아 타운 내 남한이주민과 북한난민 간의 관계와 상호인식", 『북한연구학회보』 18 (1) ; 신혜란(2018), "동화-초국적주의 지정학: 런던 한인타운 내 한국인과의 교류 속 탈북민의 일상과 담론에서 나타난 재영도화", 『대한지리학회지』 53(1) ; 이수정 (2019), "영국 거주 북한이주민의 '안녕감'에 대한 관계적 이해", 『현대북한연구』 22(2) ; 이수정 (2020), "'탈북자'에서 '사회적 가장'으로: '젠더화된 초국적 이주'의 관점에서 살펴 본 영국 거주 북한이주여성들의 이주 경험과 사회 활동의 의미", 『현대사회와 다문화』 10(2).



고향

운이 좋게도, 이곳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여럿 만났다. 나는 매주 서예를 배우는데 우리 모임에는 북한에서 온 리가 있다. 말수가 적어 자기 얘기를 좀처럼 하지 않지만, 어찌다 그가 일본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에 부모를 따라 '귀국선'을 탄 '재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아버지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태어났다. 이곳에서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년 시절 흔적을 만나곤 한다. 뉴물든에서 알게 된 지할머니는 함경남도 신포시에서 온 분이다. 그곳은 아버지의 고향이다. 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는 알 수 없었던 그의 고향 이야기를 듣는다. 지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손을 잡게 된다.

우리는 서예반에서 한글 정자체와 흘림체를 배우는데, 리의 서체는 어쩐지 다르다. 다소 거칠고 투박한데 힘이 넘쳤다. 우리는 그것을 '로동신문체'라고 부른다. 북에서 붓글씨를 쓰셨냐고 물으니, 노력동원에 나가면 생산량을 적는 벽보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늘 자기가 썼다고 했다. 서예 선생님은 그의 글씨체를 굳이 고치려 하지 않는다. 봄이 되자 우리는 봄바람, 꽃망을 같은 글자를 썼다. 과묵한 리는 힘찬 로동신문체로 '평양의 봄'이라고 썼다. 나는 '서울의 봄'을 쓰고 싶어졌다. 우리는 각자 자기 고향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고향 이야기를 하는 데 아무 주저함이 없다.

깃발

어느 나라이건 해외 한글학교에서 반드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태극기와 무궁화, 애국가 같은 국가상징을 가르치는 일일 것이다. 외국에서 나고 성장하는 어린 세대가 한글을 배우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2021년에 한 한글학교 교장이 되었다. 그 학교는 영국에 정착한 북한 사람들이 설립한 곳으로, 학부모는 대부분 북한 사람이었다. 남한 출신 교장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이 많았다. 서울 표준말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들도 환영하는 바라 금세 해결되었지만, 태극기나 애국가 같은 상징을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들의 의견도 갈렸다. 공화국기는 지긋지긋하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태극기만 가르치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북한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나고 성장했던 그곳의 시간을 모두 불행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찌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어서, 나는 학생들에게 국기를 가르치지 않았다. 부모님이 북한 출신인 어린 학생들에게 태극기만 가르치는 것이 공평한 일인지 의심했고, 그렇다고 인민공화국기와 태극기를 둘 다 가르치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빌려 썼던 공립초등학교 강당에는 "우리 나라들을 기념하자 (Let Us Celebrate Our Nations)"는 제목 아래, 30개쯤 되는 국기 그림이 걸려 있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출신 국가 국기를 아이들이 지리 시간에 그린 것이라고 했다. 거기에 인공기가 있었다. 영국 국기, 태극기와 함께, 유럽과 아시아 여느 국가의 국기들과 함께, 인공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게시되어 있었다. 영국 초등학교에서 본 그 깃발이 내게는 매우 비현실적이었다. 그 복잡한 심경은 뭐라 표현하기 어렵다.



내가 지금 일하는 곳은 뉴몰든한글학교이다. 새로 설립된 학교이다. 잘 운영된다고 생각했던 이전 학교에 뜻하지 않은 갈등이 생겼고 나는 떠났다. 연구자라면 ‘남북한’ ‘이민사회’ ‘젠더’ 같은 키워드를 빌어 설명하려 했을, 그 갈등의 처음과 끝을 내 언어로 정리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갈등 조정에 미숙했던 나는 결국 회피했다.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내 역량으로 다른 방법은 버거웠다.

뉴몰든한글학교 학생들은 올해 처음 태극기를 배우고 그렸다. 마침 3월 1일이 토요일이었다. 오래 고민했던 문제였는데 ‘맥락’을 찾으니 가뭄해졌다. 태극기는 남한의 국기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독립을 꿈꾸며 간직했던 깃발이다.

그것은 남북한 분단 이전, ‘대한’의 상징이다. 사전에 학부모들에게 이번에 태극기 수업을 할 예정이니 집에서도 미리 국기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안내했는데, 한 친구가 집에서 아با와 그렸다며 태극기 그림을 내게 선물로 주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를 데리러 온 할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삼일만세운동을 가르쳐 주셨군요”라고 반가워했다.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태극기를 이렇게 가르칠 것 같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를 포함하며, 공통의 유산을 아우르는 맥락을 찾는 것. 다행히 태극기는 그런 깃발이다.

나가며

뉴몰든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썼지만, ‘남북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을 구경하고 싶어서 누군가 뉴몰든에 온다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걸으며 보기에 특별한 일은 하나도 없다. 거리에서 북한 억양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을 빼고는 이정표가 될 만한 드라마틱한 광경이 없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회 안에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동도 잘 따져보면 인간 세상 어디나 있을 법한 일의 범위 안에서 이해할 만하다. 나는 2009년에, 한국 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설립하는 일을 도운 적이 있다. 그때 만든 센터 슬로건은 “더 큰 세상, 함께 사는 미래”였다. 지금 내가 사는 현재는, 그때 막연히 상상했던 미래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모습은 가슴 벅찬 미래라기 보다는 그런대로 함께 사는 평범한 미래다. 도전적인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더 큰 세상임에는 분명하다.



필자 소개 이향규 (런던 뉴몰든한글학교 교장)



이향규(런던 뉴몰든한글학교 교장)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2000년)를 취득하고 런던대학교(Institute of Education)에서 방문학자로 재직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교육전공 겸임교수와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연구기획팀장을 거쳐 런던한겨레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현재 런던 뉴몰든한글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사물에 대해 쓰려했지만』(2023), 『세상이 멈추자 당신이 보였다』(2022), 『공감대화』(2022),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2021), 『영국 청년 마이클의 한국전쟁』(2019), 『후아유』(2018) 등이 있다.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은 다양한 분과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평화학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적 평화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이다. 인간, 사회, 국가, 환경 분야에서 평화 의제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갈등과 위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한 담론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